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과 정당화: 유아의 성과 마음이론, 또래배제의 맥락과 놀이유형을 중심으로*

최진아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본 연구는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 일어나는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들의 도덕 판단(허용성 판단, 성 고정관념적 선택, 심각성 판단)과 정당화를 알아보고, 유아의 성과 마음이론 그리고 또래배제가 일어나는 맥락의 복잡성에 따라 그러한 판단과 정당화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서울 및 경기 지역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6세 유아 10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들은 다면적 맥락보다는 단순한 맥락에서의 또래배제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여아보다는 남아가 성 고정관념적 선택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허용성 판단에서는 변인들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아보다는 여아, 마음이론 수준이 낮은 유아보다는 높은 유아, 그리고 다면적 맥락에서보다는 단순 맥락에서 도덕적 정당화 사용 횟수가 높았다. 그러나 사회-관습적 정당화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만 5-6세 유아들도 사회적 사건에 대한 도덕 판단을 할 때 상황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 및 정당화에 유아의 성별, 마음이론과 같은 특성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 또래배제, 성 유형화된 놀이, 도덕 판단, 정당화, 마음이론

* 본 논문은 2018년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804호

E-mail: sungjh@skku.edu

유아기에는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지식들을 습득해 나가며(Smetana, Jambon, & Ball, 2013),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범주를 구성한다. 그중 성(gender)은 가장 이른 시기에 습득되는 사회적 범주 중 하나로(Cowan & Hoffman, 1986; Leinbach & Fagot, 1993; Levy & Haaf, 1994), 인간은 영아기부터 성을 구분하기 시작한다(La Freniere, Strayer, & Gauthier, 1984). 이에 따라 자신의 성과 맞는 놀잇감을 더 선호하거나(Carter & Levy, 1988; Fein, Johnson, Kosson, Stork, & Wasserman, 1975), 동성의 친구와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등(Fabes, Martin, & Hanish, 2003; La Freniere et al., 1984) 놀이에서도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Munroe & Romney, 2006)은 유아가 성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성에 근거한 포래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김은설과 동료들(2013)의 연구보고에서는 유아들이 성을 근거로 포래를 배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한 바 있다.

포래배제에 대한 선행연구들(권연희, 2014; 박종호, 2005; 정지나, 김지현, 2011; 정지나, 민성혜, 김지현, 2008)은 유아의 수줍음, 공격성 등 포래배제의 원인이 되는 유아의 개인내적 특성에 주목해왔으나, Killen과 그의 동료들(2013)은 사회적 집단 구분 때문에 포래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포래배제를 ‘집단 간 배제(intergroup exclusion)’로 바라보는 관점은 성, 국적 등과 같은 사회적 집단 구분이 배제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표면적으로는 수줍음이나 공격성과 같은 심리, 행동적 특성 때문에 거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유아가 속한 사회적 집단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래배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인 특성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집단 구분에 근거한 집단 간 배제로 바라보는 접근(intergroup approach)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래배제(peer exclusion)를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 구분 때문에 일어나는 소외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유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 일어나는 포래배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이 인간이 가장 먼저 습득하는 범주 중 하나이며(Cowan & Hoffman, 1986; Leinbach & Fagot, 1993; Levy & Haaf, 1994) 유아기에 이미 성에 근거한 포래배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김은설, 최은영, 조아라, 2013).

포래배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도덕 판단(moral judgment), 즉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그 이유에 해당하는 정당화(justification)에 관심을 가져왔다(Hwang, 2011; Killen, Pisacane, Lee-Kim, & Ardila-Rey, 2001; Killen & Stangor, 2001; Park & Killen, 2010; Theimer, Killen, & Stangor, 2001).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이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도덕적, 개인적 영역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나간다고 보는 사회영역이론(Laupa & Turiel, 1986)을 바탕으로 유아의 정당화를 분류하였다.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 일어나는 포래배제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정당화를 도덕적 정당화, 사회-관습적 정당화로 구분하였다.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란 타인의 복지·권리·정의 등 도덕적 기준에 의해 판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관습적

정당화(social-conventional justification)는 규범, 전통 관습 등 사회적인 기준과 권위 등을 근거로 사고하는 것을 뜻한다(Theimer et al., 2001).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적 사고는 상황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Killen & Malti, 2015). 그중 하나로 또래배제가 일어나는 맥락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적은 단순 맥락과 공정성, 집단의 정체성, 사회적 기대와 같이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다면적 맥락(multifaceted context)을 나누어 맥락에 따라 유아의 도덕적 사고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 유아들은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더 많아질수록 또래배제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평가를 했으며, 단순한 맥락에서보다 사회-관습적 기준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더불어 또래배제가 어떤 놀이에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도 유아의 도덕 판단이 달라진다고 하였다(Theimer et al., 2001). 인형놀이나 트럭놀이와 같이 뚜렷한 성차가 아동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Maccoby, 1988) 성 유형화된 활동들보다는 교사·소방관 놀이와 같이 미래의 직업이나 성역할과 관련된 놀이에서 반대성의 유아를 끼워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미래의 성 역할이나 직업과 관련된 놀이인 교사놀이와 소방관놀이, 그리고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즐겨 하는 놀이이자 성에 따른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형놀이와 트럭놀이를 구분하고 각각의 놀이에서 또래배제에 대한 도덕 판단과 정당화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래배제에 대한 판단은 또한 유아의 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Park & Killen, 2010;

Park, Lee-Kim, Killen, Park, & Kim, 2012; Theimer et al., 2001). 예를 들어 Theimer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여아들은 놀이에서 여아를 배제하는 것을 남아를 배제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이라 평가하였는데, 남아들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여아가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남아는 사회-관습적 정당화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여아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덕 판단과 정당화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어(Killen et al., 2001) 성차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한 선행연구들(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은 유아의 도덕적 사고과정에 관심을 가졌으며, 유아의 성, 또래배제가 일어나는 맥락, 놀이유형을 주요 변인으로 하였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도덕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아의 특성으로 마음이론 능력을 꼽는(Smetana et al., 2013) 사회영역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유아의 마음이론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마음이론 능력을 변인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마음이론이란 믿음, 욕구, 정서, 의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이에 근거하여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Astington, 1994/2007; Flavell, 2004; Wellman, 1992)을 의미한다. 마음이론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공격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와(김유미, 이순형, 2014)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행동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연구 결과(Fu, Xiao, Killen, & Lee, 2014)는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에 따라 상황에 대한 도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마음

이론 능력이 높을수록 더욱 수준 높은 정당화 추론을 사용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유미, 이순형, 2014; Killen, Mulvey, Richardson, Jampol, & Woodward, 2011).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관습적 영역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 영역에 대한 이해를 위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회영역이론의 기본 가정과 맞지 않으나, 유아의 정당화 추론 역시 마음이론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음이론 능력이 친사회적 도덕 판단과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Lane, Wellman, Olson, La Bounty, & Kerr, 2010)도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 일어나는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과 정당화가 또래배제가 일어나는 놀이유형이나 맥락의 복잡성과 같은 상황적 요인과 성별, 마음이론 수준과 같은 유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배제가 일어나는 맥락의 복잡성과 놀이유형에 따라 유아의 도덕 판단 및 정당화가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면적 맥락에서보다는 단순 맥락에서 또래배제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도덕적 기준들에 근거할 것이다. 또한 교사놀이나 소방관 놀이와 같이 미래의 직업 및 성역할과 관련된 놀이에서의 배제에 대해 더 나쁘다고 평가할 것이며, 이 역시 도덕적 기준들을 근거 할 것이다. 유아의 성별 및 마음이론과 도덕적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설을 세우지 않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유아의 또래배제에 대한 도덕적 사고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집단 구분에 의한 사회적 배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유아기에도 이미 집단 구분에 의한 배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강인설, 정계숙, 2008; 김은설 등, 2013), 사회적 배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Gieling, Thijs, & Verkuyten, 2010; Hwang, 2011; Killen & Stangor, 2001; Malti, Killen, & Gasser, 2012; Park & Killen, 2010; Park et al., 2012)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또래배제에 대한 국내 유아의 도덕적 사고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간의 사고과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제에 대해 집단 간 맥락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또래배제 현상을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또래배제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유아의 도덕 판단 및 정당화가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여, 유아가 어떤 상황에서는 또래배제를 용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에 저항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또래배제에 대한 도덕 판단과 정당화 사용에서의 성차나 마음이론 수준에 따른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어떤 유아가 또래배제에 대해 보다 관용적으로 평가하며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사고과정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차별과 편견 없이 공존하기 위해 어떤 특성들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도구

연구문제 1. 유아의 성, 마음이론 수준, 놀이 유형 그리고 맥락의 복잡성에 따라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성, 마음이론 수준, 놀이 유형 그리고 맥락의 복잡성에 따라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한 정당화 추론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심사를 의뢰하여 2017년 12월 27일자로 연구 승인(SKKU 2017-12-010)을 받았으며,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6세 반에 재원 중인 만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나 연구자가 기관에 방문하였을 시 결석하였던 유아 1명을 제외하고 총 106명(60개월~83개월, $M = 69$, $SD = 5.01$)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남자는 59명(55.7%), 여자는 47명(44.3%)이었다.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56명(52.8%), 유치원 재원 유아는 50명(47.2%)으로 어린이집 재원 유아가 더 많았다. 유아의 법정대리인과 유아가 동의한 경우 유아는 연구자와 직접 만나 마음이론 과제를 수행한 후, 또래배제에 대한 도덕 판단 및 정당화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 수행에는 최소 10분에서 최대 22분이 소요되었으며, 유아의 응답은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일반적 배경

유아의 성별, 생년월일, 기관이용여부와 같은 일반적 배경 관련 정보는 어머니용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마음이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들은 연구자와 일대일로 만나서 마음이론 측정을 위해 틀린 믿음 과제를 수행하였다. 틀린 믿음 과제는 Sung과 Hsu(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내용교체과제(Perner, Leekam, & Wimmer, 1987), 위치이동과제(Wimmer & Perner, 1983), 외양-실제 과제(Flavell, Flavell, & Green, 1983), 설명 예측과제(Bartsch & Wellman, 1989)로 구성하였으며, 각 과제의 영문 이름을 한국 유아에게 친숙한 이름인 영수, 영희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손 인형을 사용하였다.

각 과제에서는 틀린 믿음에 대한 질문과 통제 질문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두 질문에 모두 정확히 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내용교체과제, 외양-실제과제, 설명 예측과제에는 자신의 틀린 믿음과 타인의 틀린 믿음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둘 모두에 정확히 답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위치이동과제에서는 타인의 틀린 믿음에 대해 정확히 답하면 1점을 부여하였다. 마음이론 능력의 점수는 네 과제의 점수를 총합한 점수로, 최소 0점에서 최대 7점이다.

또래배제에 대한 도덕 판단 및 정당화

마음이론 과제가 끝난 후에는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과 정당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Theimer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야기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야기의 영문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카드를 제작하여 이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그림 1). 또래배제 이야기의 예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유아들은 네 가지의 성 유형화된 놀이(인형놀이, 트럭놀이, 선생님놀이, 소방관 놀이) 안의 두 가지 맥락(단순한 맥락, 다면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또래배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하였다. 인형놀이의 두 맥락(단순, 다면), 트럭놀이의 두 맥락, 선생님 놀이의 두 맥락, 소방관 놀이의 두 맥락에서 일어나는 또래배제 이야기를 순서대로 제시하였으며 유아는 총 여덟 가지 또래배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다.

먼저, 단순한 맥락에서는 유아가 성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또래를 배제하는 것(예:

인형놀이에서 남자 아이를 끼워주지 않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아 괜찮다고 답할 경우 0점, 괜찮지 않다고 답할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허용성 판단). 그리고 배제가 얼마나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를 네 장의 얼굴카드 중 하나를 골라 답하도록 하였다(심각성 판단). 심각성 판단은 1점(나쁘지 않다: 작고 중립적인 얼굴)에서 4점(아주 많이 나쁘다: 크고 찌푸린 얼굴)으로 점수화 되었다. 이어서 그에 대한 이유(정당화)를 물어보아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다면적 상황에서는 성 유형화된 놀이에 남아와 여아가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한 명만 함께 놀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예: 영희와 영수 모두 인형놀이를 하고자 하지만, 인형이 한 개 밖에 남지 않은 경우). 다면적 상황에서는 한정된 자원(예: 하나 뿐인 인형), 사회적 기대(예: 인형놀이는 여자의 놀



그림 1. 또래배제에 대한 도덕 판단 및 정당화 과제 그림카드

이라는 인식), 공평성(예: 남아와 여아 중 누가 인형놀이를 하는 것이 공평한가?)과 같은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성별에 근거한 또래배제가 일어나는 단순 맥락과 다르다. 이때, 남아와 여아 중 누구를 끼워주는 것이 옳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성 고정관념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1점(예: 인형놀이에서 여아를 끼워주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다면적 맥락에서도 심각성 판단을 하도록 하여 0~4점을 부여하였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기록하였다.

정당화는 기록지에 기록한 후 Theimer와 동

료들(2001)의 연구에서와 같이 도덕적 정당화와 사회-관습적 정당화로 분류하고, 총 여덟 가지의 또래배제 이야기에서 도덕적 정당화와 사회-관습적 정당화가 사용된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중복코딩이 된 경우는 없었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유아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아동학 전공 두 채점자가 정당화를 분류하였으며, Cohen의 kappa 값이 .92($p < .00$)로 나타나 채점결과와 신뢰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판단의 점수 범위는 표 1과 같으며, 정당화 분류의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1.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판단 점수범위

		인형놀이	트럭놀이	교사놀이	소방관놀이	총점
		점수범위				
단순한 맥락	허용성	0-1	0-1	0-1	0-1	0-4
	심각성	1-4	1-4	1-4	1-4	4-16
다면적 맥락	성 고정관념적 선택	0-1	0-1	0-1	0-1	0-4
	심각성	1-4	1-4	1-4	1-4	4-16

표 2.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정당화 분류

분류		예
도덕적 정당화	친사회적 정당화	“친구를 끼워주지 않는 것은 친절하지 못한 거예요. 모두 다 같이 놀아야 해요.”
	평등과 공정성	“끼워주지 않는 건 불공평해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해야 해요” “영수를 끼워줘야 해요 왜냐하면 영수한테 너는 남자니까 못 논다고 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기대와 고정관념	“남자들은 인형가지고 놀지 않아요.” “여자들은 트럭 싫어해요”
사회-관습적 정당화	집단 정체성	“여자들은 여자들처럼 같이 노는 걸 좋아해요”
	집단 기능	“남자들은 남자들처럼 트럭놀이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외		무응답, “모르겠어요.” 등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만 5·6세 유아의 마음이론, 또래배제에 대한 판단, 정당화 사용 비율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음이론 점수, 또래배제에 대한 판단과 정당화 사용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아 분석에서 연령을 제외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유아의 마음이론과 도덕 판단 및 정당화의 기술통계

각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 5·6세 유아($M = 69$ 개월, $SD = 5.01$)의 마음이론과 또래배제에 대한 판단 및 정당화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마음이론의 평균점수는 4.63($SD = 1.82$), 중앙값은 5점이었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표 3. 측정 변인들 간 상관계수와 기술통계 (N = 106)

	1	2	3	4	5	6	7
[유아변인]							
1. 성별	-						
2. 마음이론	.03	-					
[도덕 판단]							
3. 허용성	.02	.22*	-				
4. 성 고정관념적 선택	-.31**	.03	-.02	-			
5. 심각성	-.09	.11	.44**	-.09	-		
[정당화]							
6. 도덕적 정당화	.21*	.23*	.28**	-.21*	.31**	-	
7. 사회-관습적 정당화	-.09	-.11	-.30**	.07	-.28**	-.36**	-
평균	1.44	4.63	.94	2.12	3.00	5.49	.53
표준편차	.50	1.82	.16	.78	.54	2.25	1.04
왜도	.23	-.69	-2.96	.28	-.05	-.58	2.38
첨도	-1.98	.03	8.46	.102	-.70	-.75	5.49

* $p < .05$, ** $p < .01$.

검증을 위하여 마음이론 수준이 높은 집단 ($N = 62$, $M = 5.87$, $SD = .84$)과 낮은 집단 ($N = 44$, $M = 2.89$, $SD = 1.33$)으로 구분하였다. 마음이론 점수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유아 가 총 25명(23.6%)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인 중앙값에 속한 유아들은 마음이론 상 집단에 포함시켰다.

허용성의 점수는 평균 .94($SD = .16$)로, .5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05) = 29.378$, $p < .00$). 즉, 만 5·6세 유아는 단순히 성에 근거하여 놀이에서 또래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성 고정관념적 선택의 평균은 2.12($SD = .78$)회로, 유아들은 네 번 중 평균 2.12회는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유아를 놀이 친구로 선택하였다. 또래배제의 심각성 판단의 평균 점수는 3.00($SD = .5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또래배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정당화 사용 횟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도덕적 정당화 사용 횟수가 평균 5.49($SD = 2.25$)회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정당화 1.98($SD = 2.12$)회, 사회-관습적 정당화 .53 ($SD = 1.04$)회 순으로 나타나 사회-관습적 정당화를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즉, 유아들은 총 여덟 가지의 또래배제 이야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때에 평균 5.49회는 도덕적 정당화를, 평균 .53회는 사회-관습적 정당화를 하였다.

유아의 성별, 마음이론, 놀이 유형, 맥락의 복잡성에 따른 도덕 판단의 차이

연구문제 1에서 제안한 유아의 성별, 마음이론 수준, 이야기의 맥락과 놀이유형에 따른 또래배제에 대한 판단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허용성과 성 고정관념적 선택은 네 유형의 놀이에서 반복 측정하여 2(성: 남, 여) $\times$ 2(마음이론: 상, 하) $\times$ 4(놀이유형: 인형놀이, 트럭놀이, 교사놀이, 소방관놀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했다. 심각성의 경우 단순 맥락과 다면적 맥락 모두에서 측정되므로, 네 가지 놀이유형 내의 두 가지 맥락에서 여덟 번 반복 측정하여 2(성: 남, 여) $\times$ 2(마음이론: 상, 하) $\times$ 2(맥락: 단순 맥락, 다면적 맥락) $\times$ 4(놀이유형: 인형놀이, 트럭놀이, 교사놀이, 소방관놀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허용성에서는 변인들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만 5·6세 유아는 성별, 그리고 마음이론 수준과 상관없이 놀이에서 단순히 성에 근거하여 또래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네 유형의 놀이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적 선택에서는 성별의 주 효과가 유의하여($F(1, 102) = 10.497$, $p < .01$, $\eta^2 = .09$), 남아($M = .58$, $SD = .03$)가 여아($M = .46$, $SD = .03$)보다 성 고정관념적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04) = 3.37$, $p < .01$).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주로 여아 놀이라 인식되는 인형놀이나 교사놀이에서는 여아를, 남아들의 놀이라 인식되는 트럭놀이나 소방관놀이에서는 남아를 선택하는 경향이 남아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적 선택 평균은 표 4와 같다.

유아의 성별, 마음이론, 맥락의 복잡성, 그리고 놀이유형에 따른 심각성의 평균 차이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 맥락의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02) = 14.744$,

표 4.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놀이유형							
		인형놀이		트럭놀이		교사놀이		소방관놀이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성 고정관념적 선택	남아 (<i>n</i> = 59)	0.59	0.07	0.58	0.07	0.57	0.07	0.59	0.06
	여아 (<i>n</i> = 47)	0.45	0.07	0.48	0.07	0.60	0.07	0.32	0.07
심각성 판단	단순 맥락 (<i>n</i> = 106)	3.33	0.09	3.17	0.09	3.09	0.10	3.11	0.10
	다면적 맥락 (<i>n</i> = 106)	2.84	0.10	2.84	0.11	2.86	0.11	2.73	0.11

$p < .00$, $\eta^2 = .13$),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만 5·6세 유아들이 다면적 맥락에서의 또래배제($M = 2.82$, $SD = .08$)가 단순 맥락에서의 또래배제($M = 3.18$, $SD = .06$)보다 덜 나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성에 근거하여 또래를 배제하는 단순맥락에서의 또래배제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다면적 상황에서의 배제보다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단순 맥락과 다면적 맥락에서의 심각성 평균 점수는 표 4와 같다.

유아의 성별, 마음이론, 놀이 유형, 맥락의 복잡성에 따른 정당화 사용 횟수의 차이

연구문제 2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 마음이론 수준, 맥락의 복잡성과 놀이 유형에 따라 정당화 사용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유아의 성별과 마음이론 수준을 개인 간 변인으로 하고, 각 놀이유형 내의 두 가지 맥락에서 정당화 사용 횟수를 여덟 번 반복 측정하여 2(성: 남, 여) $\times$ 2(마음이론: 상,

하) $\times$ 2(맥락: 단순 맥락, 다면적 맥락) $\times$ 4(놀이유형: 인형놀이, 트럭놀이, 교사놀이, 소방관놀이) $\times$ 2(정당화: 도덕적 정당화, 사회-관습적 정당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도덕적 정당화 사용 횟수와 사회-관습적 정당화 사용 횟수의 평균은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정당화 사용 횟수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정당화의 주 효과($F(1, 102) = 311.951$, $p < .00$, $\eta^2 = .75$)와 맥락의 주 효과($F(1, 102) = 13.255$, $p < .00$, $\eta^2 = .12$), 그리고 정당화와 성별($F(1, 102) = 6.944$, $p < .05$, $\eta^2 = .06$), 정당화와 마음이론($F(1, 102) = 5.630$, $p < .05$, $\eta^2 = .05$), 정당화와 맥락($F(1, 102) = 7.14$, $p < .01$, $\eta^2 = .07$)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당화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도덕적 정당화와 사회-관습적 정당화 사용 횟수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만 5·6세 유아들은 사회-관습적 정당화보다는 도덕적 정당화를 더 많

표 5. 도덕적 정당화의 평균과 표준편차

			놀이유형							
			인형놀이		트럭놀이		교사놀이		소방관놀이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단순 맥락	마음이론 하 집단	남아 (<i>n</i> = 24)	0.71	0.46	0.50	0.51	0.42	0.50	0.50	0.51
		여아 (<i>n</i> = 20)	0.90	0.31	0.65	0.49	0.80	0.41	0.70	0.47
	마음이론 상 집단	남아 (<i>n</i> = 35)	0.80	0.41	0.69	0.47	0.71	0.46	0.77	0.43
		여아 (<i>n</i> = 27)	0.93	0.27	0.93	0.27	0.78	0.42	0.85	0.36
다면적 맥락	마음이론 하 집단	남아 (<i>n</i> = 24)	0.42	0.50	0.46	0.51	0.42	0.50	0.38	0.49
		여아 (<i>n</i> = 20)	0.70	0.47	0.70	0.47	0.70	0.47	0.75	0.44
	마음이론 상 집단	남아 (<i>n</i> = 35)	0.71	0.46	0.71	0.46	0.71	0.46	0.54	0.51
		여아 (<i>n</i> = 27)	0.74	0.45	0.63	0.49	0.59	0.50	0.67	0.48

표 6. 사회-관습적 정당화의 평균과 표준편차

			놀이유형							
			인형놀이		트럭놀이		교사놀이		소방관놀이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단순 맥락	마음이론 하 집단	남아 (<i>n</i> = 24)	0.04	0.20	0.17	0.38	0.04	0.20	0.08	0.28
		여아 (<i>n</i> = 20)	0.10	0.31	0.15	0.37	0.05	0.22	0.10	0.31
	마음이론 상 집단	남아 (<i>n</i> = 35)	0.03	0.17	0.09	0.28	0.06	0.24	0.09	0.28
		여아 (<i>n</i> = 27)	0.04	0.19	0.00	0.00	0.07	0.27	0.00	0.00
다면적 맥락	마음이론 하 집단	남아 (<i>n</i> = 24)	0.00	0.00	0.08	0.28	0.17	0.38	0.08	0.28
		여아 (<i>n</i> = 20)	0.10	0.31	0.00	0.00	0.10	0.31	0.10	0.31
	마음이론 상 집단	남아 (<i>n</i> = 35)	0.03	0.17	0.11	0.32	0.06	0.24	0.14	0.36
		여아 (<i>n</i> = 27)	0.04	0.19	0.04	0.19	0.04	0.19	0.04	0.19

이 하였다. 전체 유아 중 67.1%가 도덕적 기준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고, 고정관념이나 집단 기능과 같은 사회-관습적 기준을 제시한 유아는 전체의 7%였다. 맥락의 주 효과가 나타나 사후분석을 실행한 결과, 유아들은 다면적 맥락($M = .34, SD = .02$)에서보다 단순 맥락($M = .40, SD = .01$)에서 정당화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즉, 다면적 맥락에서는 도덕적 정당화나 사회-관습적 정당화 중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응답을 한 유아가 더 많았다.

정당화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는데, 남아보다($M = .63, SD = .29$)는 여아($M = .75, SD = .25$)가, 마음이론 수준이 낮은 유아($M = .62, SD = .30$)보다는 높은 유아($M = .73, SD = .26$)가 도덕적 정당화를 더 많이 하였다(각각 $t(104) = -2.21, p < .05, t(104) = -2.01, p < .05$). 그리고 다면적 맥락($M = .62, SD = .37$)에서보다 단순 맥락($M = .73, SD = .30$)에서 도덕적 정당화 사용 횟수의 평균이 더 높았다($t(105) = 3.46, p < .01$). 그러나 사회-관습적 정당화에서는 변인들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106명의 만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적 사고과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유아들도 또래배제에 대한 도덕 판단을 할 때 상황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유아기에도 이미 사회적 사건을 판단할 때에 여러 기준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성별, 마음이론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회

적 의사결정과 그와 관련된 사고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아의 성별, 마음이론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 또래배제가 일어나는 맥락의 복잡성이나 놀이유형에 따라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단순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성에 근거한 또래배제에 대한 허용성 판단에서는 유아의 성별, 마음이론, 그리고 놀이유형에 의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성의 평균이 .94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들이 성별, 마음이론 수준, 그리고 또래배제가 일어나는 놀이유형에 상관없이 단순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또래배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유아들이 이러한 평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친구가 속상하니까요’와 같이 대답하였는데, 이는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 반대 성의 유아를 배제하는 것을 도덕적 위반으로 받아들이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선행연구들(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만 5·6세 유아들도 오로지 성에 근거하여 또래를 배제하는 것이 또래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를 옳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 남아와 여아 중 한 명만을 놀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지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아가 여아보다 성 고정관념적 선택을 더 많이 하였고, 여아는 남아보다 성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유아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tuber, Klugman, 그리고 Daniel(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타인을 배제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경향이 만 5·6세 유아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배타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여아와 남아의 배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어를 사용하여 또래를 배제하는 모습은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비언어적인 배제는 여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Underwood, Scott, Galperin, Bjornstad, & Sexton, 2004)는 배타성에서의 성차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표현양상의 차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관찰연구를 통하여 남아와 여아의 또래배제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각성 판단에서는 맥락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이 다면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또래배제보다 단순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또래배제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들(Killen et al., 2001; Theimer et al., 200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를 통해 유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래배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ukowski와 Sippola (2001), Wainryb과 동료들(2014)과 같은 학자들은 현실적으로 배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인간이 어떤 경우에 배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기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유아들도 만일 자원이 한정되어 있거나(“인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단 구성원들이 외집단 구성원을 수용하기 꺼릴 때(“여자 친구들이 남자친구랑 놀지 않는다고 했어요.”)에는 또래배제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유아들의 정당화에서도 상황적 요인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정당화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유아들이 사회-관습적 정당화보다 도덕적 정당화를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시기부터 도덕적 원리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박영신,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맥락의 주 효과도 유의하였는데, 다면적 맥락에서보다는 단순 맥락에서 도덕적 정당화나 사회-관습적 정당화를 사용한 횟수가 더 높았다. 이는 또래들의 선호,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 유아의 마음, 한정된 자원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다면적 상황에서는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워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유아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당화와 그 외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덕적 정당화 사용에 있어서 성, 마음이론 수준, 맥락의 복잡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관습적 정당화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첫째로 정당화와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남아보다 여아가 도덕적 정당화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때리거나 놀리는 것과 같은 행동에 대하여 여아는 타인의 행복이나 공평성과 같은 근거를 들어 도덕 판단을 하였다는 최미숙과 박은영(2010)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기 때문에(곽경화, 정옥분, 2000; 정옥분, 곽경화, 2003) 나타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마음이론 수준이 낮은 유아보다는 높은 유아가 도덕적 정당화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또래배제에 대한 도덕적 사고 역시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과 관련이 있

음을 보여주며, 높은 마음이론 능력이 타인의 심리적 욕구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Lane et al., 2010)와도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은 다면적 맥락에서보다는 단순 맥락에서 도덕적 정당화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맥락에서의 또래배제를 더욱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아들은 또래의 규범, 집단의 유지 등 다양한 기준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다면적 맥락에서의 또래배제보다, 단순히 성에 근거하여 유아를 배제하는 단순맥락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도덕 원칙들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도덕 판단과 정당화 사용에서 놀이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판단 및 정당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과 마음이론, 놀이의 유형과 맥락의 복잡성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또래 규범 및 학교 규범(McGuire, Rutland, & Nesdale, 2015; Tropp, O'Brien, & Migacheva, 2014), 고정관념(Killen et al., 2013), 외집단과의 접촉 경험(Allport, 1958), 소외 경험(Fanger, Frankel, & Hazen, 2012; Will, van Lier, Crone, & Güroğlu, 2016), 형제자매의 성(Rust, Golombok, Hines, Johnston, & Golding, 2000) 등 다양한 요인이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한 사고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들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연구한다면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적 사고에 대한 다각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의 경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와 같은 유아의 도덕적 사고가 실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관찰연구를 병행하여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적 사고가 실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근거한 또래배제에 초점을 두었다. 유아기는 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준들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Smetana et al., 2013), 인종이나 민족, 장애 여부 등과 같은 다양한 집단 구분에 의한 또래배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 다른 여러 가지 집단 구분에 의해 일어나는 또래배제에 대해 연구한다면 유아의 또래배제에 대한 도덕적 사고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기에 일어나는 소외를 집단 간 접근법(intergroup approach)에 근거하여 바라봄으로써 또래배제를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또래배제에 대한 도덕적 사고를 다룬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Hwang, 2011; Park & Killen, 2010; Park et al., 2012), 본 연구는 이를 유아기로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영역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들과 같이 유아들도 도덕적 기준들에 근거하여 사회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밝혔다. 만 5·6세 유아도 상황에 따라 또래배제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뿌리가 유아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또한, 마음이론이 도덕적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서도 사회영역이론의 관점에서 두 변인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구한 연구가 많지 않았는데(Smetana et al., 2013), 본 연구는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적 사고에서도 마음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마음이론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필수적인 능력임(정진나, 2013)을 강조해 왔는데, 본 연구의 이러한 능력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능력임을 시사한다. 이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성 교육에서는 마음이론 능력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 고정관념적 선택에서 성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 또래배제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성 고정관념이나 또래관계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유아의 성별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설, 정계숙 (2008). 만 3 세 유아의 놀이에 나타난 관계적 공격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1-50.
- 곽경화, 정옥분 (2000).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2), 213-232.
- 정옥분, 곽경화 (2003).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1), 1-20.
- 권연희 (2014). 남녀 유아의 수줍음과 또래괴롭힘 피해 간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25-45.
- 김유미, 이순형 (2014). 3, 4, 5 세 유아의 공격 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 및 정당화 추론과 틀린믿음 이해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35(3), 49-69.
- 김은설, 최은영, 조아라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보고. No. 2013-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영신 (2013).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추론 영역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215-230.
- 박종효 (2005).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9-35.
- 정지나, 김지현 (2011).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행동,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기술이 유아의 또래배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20(5), 983-992.
- 정지나, 민성혜, 김지현 (2008). 또래 배척과 관련된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 *아동학회지*, 29(4), 135-146.
- 정진나 (2013). 일차순위와 이차순위 마음상태에 대한 아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97-118.
- 최미숙, 박은영 (2010).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정당화 및 통제 소재의 차이. *열린부모교육연구*, 2(1), 61-77.
- Allport, G. W. (1958). *The nature of prejudice*. New York: Double day.

- Astington, J. W. (2007). **아동의 마음 발견하기** (송순,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4).
- Bartsch, K., & Wellman, H. (1989). Young children's attribution of action to beliefs and desires. *Child Development*, 946-964. doi:10.1111/1467-8624.ep9676210
- Bukowski, W. M., & Sippola, L. K. (2001). Groups, individuals, and victimization: A view of the peer system.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pp. 355-377).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rter, D. B., & Levy, G. (1988). Cognitive Aspects of Early Sex-Role Development: The Influence of Gender Schemas on Preschoolers' Memories and Preferences for Sex-Typed Toys and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59(3), 782-792. doi:10.2307/1130576
- Cowan, G., & Hoffman, C. D. (1986). Gender stereotyping in young children: Evidence to support a concept-learning approach. *Sex Roles*, 14(3), 211-224. doi:10.1007/bf00288250
- Fabes, R. A., Martin, C. L., & Hanish, L. D. (2003). Young children's play qualities in same-, other-, and mixed-sex peer groups. *Child Development*, 74(3), 921-932. doi:10.1111/1467-8624.00576
- Fanger, S. M., Frankel, L. A., & Hazen, N. (2012). Peer exclusion in preschool children's play: Naturalistic observations in a playground setting. *Merrill-Palmer Quarterly*, 58(2), 224-254.
- Fein, G., Johnson, D., Kosson, N., Stork, L., & Wasserman, L. (1975). Sex stereotypes and preferences in the toy choices of 20-month-old boys and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11(4), 527-528. doi:10.1037/h0076675
- Flavell, J. H. (2004). Theory-of-mind development: Retrospect and prospect. *Merrill-Palmer Quarterly*, 50(3), 274-290. doi:10.1353/mpq.2004.0018
- Flavell, J. H., Flavell, E. R., & Green, F. L. (1983). Development of the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Cognitive Psychology*, 15(1), 95-120.
- Fu, G., Xiao, W. S., Killen, M., & Lee, K. (2014). Moral judgment and its relation to second-order theory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50(8), 2085. doi:10.1037/a0037077
- Gieling, M., Thijs, J., & Verkuyten, M. (2010). Tolerance of practices by Muslim actors: An integrative social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81(5), 1384-1399.
- Hwang, J. Y. (2011). *Judgm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n Exclusion and Inclusion of a Biracial Peer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Killen, M., & Malti, T. (2015). Moral judgments and emotions in contexts of peer exclusion and victimization. In J. B. Benson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48, pp.249-276). Burlington, VT: Academic Press.
- Killen, M., Mulvey, K. L., Richardson, C., Jampol, N., & Woodward, A. (2011). The accidental transgressor: Morally-relevant theory of mind. *Cognition*, 119(2), 197-215. doi:10.1016/j.cognition.2011.01.006
- Killen, M., Mulvey, K. L., & Hitti, A. (2013). Social exclusion in childhood: A developmental intergroup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84(3), 772-790. doi:10.1111/cdev.12012
- Killen, M., Pisacane, K., Lee-Kim, J., &

- Ardila-Rey, A. (2001). Fairness or stereotypes? Young children's priorities when evaluating group exclusion and inclu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5), 587-596. doi: 10.1037//0012-1649.37.5.587
- Killen, M., & Stangor, C. (2001). Children's social reasoning about inclusion and exclusion in gender and race peer group contexts. *Child Development*, 72(1), 174-186.
- La Freniere, P., Strayer, F., & Gauthier, R. (1984). The emergence of same-sex affiliative preferences among preschool peers: A developmental/eth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5(5), 1958-1965. doi:10.2307/1129942
- Laupa, M., & Turiel, E.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2), 405-412. doi:10.2307/1130596
- Lane, J. D., Wellman, H. M., Olson, S. L., LaBounty, J., & Kerr, D. C. (2010). Theory of mind and emotion understanding predict mor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871-889. doi:10.1348/026151009X483056
- Leinbach, M. D., & Fagot, B. I. (1993). Categorical habituation to male and female faces: Gender schematic processing in infanc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6(3), 317-332.
- Levy, G. D., & Haaf, R. A. (1994). Detection of gender-related categories by 10-month-old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7(4), 457-459.
- Maccoby, E. E. (1998). *The two sexes: Growing up apart, Coming Toge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lti, T., Killen, M., & Gasser, L. (2012). Social judgments and emotion attributions about exclusion in Switzerland. *Child Development*, 83(2), 697-711.
- Munroe, R. L., & Romney, A. K. (2006).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same-sex aggregation and social behavior: A four-culture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1), 3-19. doi:10.1177/0022022105282292
- Park, Y., & Killen, M. (2010). When is peer rejection justifiable? Children's understanding across two cultures. *Cognitive Development*, 25(3), 290-301. doi:10.1016/j.cogdev.2009.10.004
- Park, Y., Lee Kim, J., Killen, M., Park, K., & Kim, J. (2012). Korean children's evaluation of parental restrictions regarding gender stereotypic peer activities. *Social Development*, 21(3), 577-591. doi:10.1111/j.1467-9507.2011.00643.x
- Perner, J., Leekam, S. R., & Wimmer, H. (1987). Three year olds' difficulty with false belief: The case for a conceptual defici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2), 125-137.
- Rust, J., Golombok, S., Hines, M., Johnston, K., & Golding, J. (2000). The role of brothers and sisters in the gender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7(4), 292-303. doi:10.1006/jecp.2000.2596.
- McGuire, L., Rutland, A., & Nesdale, D. (2015). Peer group norms and accountability moderate the effect of school norms on children's intergroup attitudes. *Child Development*, 86(4),

- 1290-1297. doi:10.1111/cdev.12388
- Smetana, J. G., Jambon, M., & Ball, C. (2013). The social domain approach to children's moral and social judgments. In M. Killen (Ed.),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2nd Ed., 23-45). New York: Psychology Press.
- Stuber, J. M., Klugman, J., & Daniel, C. (2011). Gender, social class, and exclusion: Collegiate peer cultures and social reproduc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54(3), 431-451. doi:10.1525/sop.2011.54.3.431
- Sung, J., & Hsu, H. C. (2014). Collaborative mother-toddler communication and theory of mind development at age 4.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5(5), 381-391.
- Theimer, C. E., Killen, M., & Stangor, C. (2001). Young children's evaluations of exclusion in gender-stereotypic peer contexts.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18-27. doi:10.1037//0012-1649.37.1.18
- Tropp, L. R., O'Brien, T. C., & Migacheva, K. (2014). How peer norms of inclusion and exclusion predict children's interest in cross-ethnic friendships. *Journal of Social Issues*, 70(1), 151-166. doi:10.1111/josi.12052
- Underwood, M. K., Scott, B. L., Galperin, M. B., Bjornstad, G. J., & Sexton, A. M. (2004). An observational study of social exclusion under varied conditions: Gender and development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75(5), 1538-1555.
- Wainryb, C., Komolova, M., & Brehl, B. (2014). Children's narrative accounts and judgments of their own peer-exclusion experiences. *Merrill-Palmer Quarterly*, 60(4), 461-490. doi:10.13110/merrpalmquar1982.60.4.0461
- Wellman, H. M. (1992).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MIT Press.
- Will, G. J., van Lier, P. A., Crone, E. A., & Güroğlu, B. (2016). Chronic childhood peer rejection is associated with heightened neural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1), 43-55. doi:10.1007/s10802-015-9983-0
- Wimmer, H., & Perner, J. (1983). Beliefs about beliefs: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1), 103-128. doi:10.1016/0010-0277(83)90004-5

1차원고접수 : 2018.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8. 08. 21.

최종게재결정 : 2018. 08. 28.

Children's Moral Judgments and Justifications about Peer Exclusion in Gender-Typed Play: Effects of Children's Gender, Theory of Mind, and Context and Types of Play of Peer Exclusion

Jina Choi

Jihyun Sung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ildren's moral judgments and justifications about peer exclusion in gender-typed play, and to examine whether they differed by gender, Theory of Mind (ToM), and with respect to context and types of play. A sample of 106 children (five to six years old)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found that children assessed peer exclusion more negatively in baseline context than in multifaceted context, and boys were more likely than girls to choose playmates that fit gender stereotypes. Analyses of justifications found that girls and children with high ToM used moral justifications more often than their counterparts. Moral justifications were more often used in baseline contex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of moral development in that children as young as five to six years old considered situational factors to make moral judgments. Furthermore, children's gender and ToM influenced their moral judgments and justifications.

Key words : Peer Exclusion, Gender-Typed Play, Moral Judgment, Justification, Theory of Mind

부 록

또래배제 이야기의 예

여자 친구들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인 영수도 인형놀이를 하고 싶어서 놀이에 끼워달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여자 친구들이 “영수는 남자니까 인형놀이를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 했어요.

질문 1(허용성).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질문 2(심각성). 여자 친구들이 영수는 남자이기 때문에 인형놀이에 끼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질문 3(정당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번에는 똑같이 여자 친구들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데, 영수와 영희가 와서 함께 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형은 딱 한 개가 남아서 한 명만 함께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질문 1(선택). 여자 친구들은 누구와 함께 놀아야 할까요?

질문 2(심각성). 만일 여자 친구들이 영수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질문 3(정당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